



KoLFACI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Newsletter

Issue No. 11 August 2024

2023 Comment

2023년 KoLFACI 총평

Annual Evaluation

연례 평가회

Training

역량강화 훈련

KoLFACI News

KoLFACI 행사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LFACI Newsletter

Greetings from the new Secretary-General

신임 사무총장 인 / 사 / 말

KoLFACI 사무총장 이경태



저와 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한-중남미 농업기술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남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경태입니다. 2023년 8월부터 KoLFACI의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의 전임자께서 이루신 성과들을 기반으로, KoLFACI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KoLFACI는 중남미 농업의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성 강화, 그리고 회복탄력성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카카오, 커피, 강낭콩 등을 재배하는 소농 및 가족농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작물의 품종 개선과 재배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연구 역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KoLFACI의 협력 연구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물론, 기후 스마트 농업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모두 KoLFACI를 꾸준히 지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와 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한-중남미 농업기술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남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KoLFACI 총평

2023년 KoLFACI(한-중남미 농식품 협의회)는 중남미 지역에서 농업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주요 과제인 5과제(가축 분뇨과제, 카카오, 커피, 강낭콩, 온실가스)의 연례평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강낭콩과 카카오 과제의 평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가축분뇨와 커피 과제는 코스타리카 현장에서 국립농축산기술혁신이전청(INTA)과,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와 각각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커피 및 카카오 과제의 현장 모니터링도 추진하였다.

온실가스 연례 평가회는 콜롬비아의 국제열대농업센터(CIAT)에서 개최되었고 중남미 온실가스 현황 공유를 위한 온실가스 포럼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온두라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다양한 중남미 나라에서 농민, 농업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향상 및 소농을 위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향후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커피와 카카오 과제는 회원국이 추가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KoLFACI 사무국과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농업 협력 중남미 사절단 파견, 가축분뇨 과제 웨비나 역량 교육, 커피 포럼, 과제 연례 평가회 등을 계획 중이다.



연례 평가회



가축 분뇨과제 평가회

2020년 시작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토양비옥도 개선 및 작물 생산성 향상 연구” 과제의 연례평가회가 2023년 9월 6일(수)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례평가회는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8개국이 참석하였다.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기회의 장으로써 맞춤형 퇴비 개발 연구 과정 및 성과 공유, 차기 년도 계획 등을 8개국 연구원들이 발표하였다.

특히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가 우수 국가로 선정되었다. 페루는 액상 비료를 활용한 퇴비 생산 체계를 실험하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전정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 제조기술을 연구하였으며 온두라스는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해냈다. 이후 일반 토의 섹션에서 과

제 추진 시 어려운 점들을 토의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국 연구자들과 국가별 개별 상황을 고려한 ‘역량 강화 훈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에는 온라인으로 가축 퇴비 제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원국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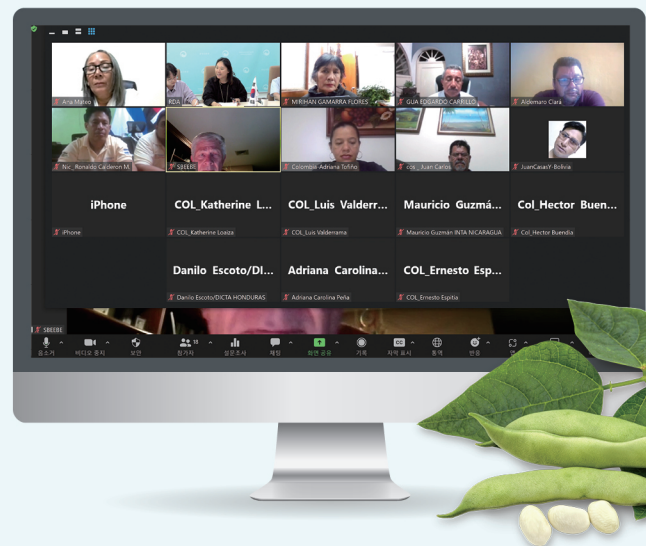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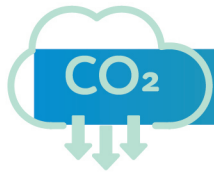
프리올 과제 평가회

2023년 9월 22일(금) KoLFACI “기후변화 대응 가뭄 저항성 강낭콩품종 개발 연구” 과제 평가회를 농촌진흥청 ITCC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강낭콩 과제는 CIAT에서 9개국의 연구기관에 유전자원을 분양하여 국가마다 다른 환경에 맞는 특성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특성 평가 및 지역 적응 시험을 진행하고, 가뭄 저항성 강낭콩 우수 계통을 선발하는 과제이다.

KoLFACI 이경태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9개국의 과제 추진 현황과 수행 결과 및 4년 차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과제 리더인 식량원 발작물개발과 한상익 연구관, 국가별 과제 연구자, CIAT의 과제 리더인 스티브 비비 박사, KoLFACI 사무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협력도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 결과 콜롬비아,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가 우수 국가로 선정되었다.

KoLFACI의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기후변화 적응 분야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가뭄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을 통해 농업용수 절약,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가 생계 소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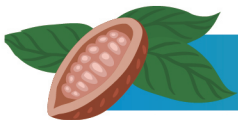




온실가스 연례평가회

2023년 6월 5일(월)~6일(화) KoLFACI “중남미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최적 재배법 연구” 과제 연례평가회를 콜롬비아 국제열대농업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본 과제는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총 5개국이 참여하고 국제열대농업센터(CIAT)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파나마가 신규로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는 1년차로 농가 조사를 통해 국별 온실가스 배출 대표 작

물과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건조기후 국가의 경우 강낭콩과 옥수수를 대상으로 건조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저감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목축 중점 국가는 목초지 관리기술, 혼농임목축 등의 저감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남미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포럼을 연계 개최하여 중남미 온실가스 현황을 공유하였다.



카카오 최종 평가회

“카카오 우수품종 및 기후 적응 생산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과제 최종평가회가 2023년 11월 24일(금) 농촌진흥청 ITCC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최종평가회인 만큼 과제 최종 성과달성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신품종 적용, 그

늘 관리, 시비, 병해충관리에 대한 논의와 품종 선발에 대한 회원국 성과를 발표하고 종합토론 및 후속 과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해 보았다. 또한 카카오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중남미 KOPIA(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Agriculture) 소장단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카카오 농가들의 소득과 생산성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니카라과의 경우 유전개량, 혼농임업의 도입으로 2.7배의 소득향상과 작물 수량 증진의 결과를 도출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3.8배의 소득향상 결과를 도출해냈다. 평가회 이후 종합 토론 시간에는 높은 가격으로 측정된 접목묘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연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를 후속 과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커피 과제 최종평가회 & 커피 훈련

2023년 9월 4일(월)~5일(화) 코스타리카 커피연구소(ICAFE)에서 KoLFACI 커피 과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커피 소농의 지속 가능한 생산 확대를 위한 전정 및 시비 체계연구” 과제 최종 평가회에서는 회원국 연구과정 및 결과 공유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커피 시험연구 농가 2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커피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알라후엘라(Alajuela) 지역의 농가는 4년 주기 주간 전정, 스켈레톤 전정, 선택 전정으로 품종에 따른 처리를 하고 현재는 수확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종 평가회에서 회원국 과제 담당자들이 국가별로 적합한 전정 기술 선정하는 연구 과정을 공유하였다. CATIE에서는 지난 3년간의 회원국 자료를 수집하여 수량, 병해충 발생, 재배 비용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커피는 다년생 식물인 만큼 과제 기간 3년(2020~2023) 동안 성과 결과를 도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전정 방법에 따른 커피 수량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효과를 평가하고 현장에 보급하기까지 연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단계 커피 후속 과제’로



연속하여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최종평가회 이후 일정으로 9월 6일부터 7일까지 CATIE는 회원국 과제 담당자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 내용은 유기비료 생산의 기본 원리 및 실습, 지속 가능한 유기비료 생산, 잡초 및 병해충 관리, 재배연도에 따른 전정 시스템 방법, 국가별 적응 전정 방법, 커피 품종별 적정 영양 관리, 최근 비료 동향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역량강화 훈련



가축분뇨 퇴비화 과제 훈련 웨비나

KoLFACI 사무국은 가축분뇨 퇴비화 과제 훈련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 웨비나를 진행하였다. 본 훈련은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07:00~09:00 총 4회 ITCC 1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KoLFACI 사무국, 강사 및 KoLFACI 과제 회원국 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스페인어 자막으로 제작된 영상을 회원국 연구자들과 함께 시청 후 질의응답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주 차는 한국의 축분 처리 산업 및 제조 기술 현황을 주제로 국립축산과학원의 이동준 박사가 연사로 참여하였다. 퇴·액비화,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이용 체계와 관련 산업을 소개하고 퇴비 제조 과정상 발생 가능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2주 차는 가축 퇴비의 비료 성분 분석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농수산대학교 이창훈 교수가 유기성 폐 자원화 기술 및 퇴비

화 과정의 물질 변화, 퇴비 분석 절차, 영양성분 분석 및 안정성과 품질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3주 차 또한 이창훈 교수가 퇴비의 작물별 사용량 결정 도구 및 원리와 퇴비의 적정 유기자원의 투입 방법 및 퇴기 장기 시용 효과에 관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4주 차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안난희 박사가 흥미로운 주제로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친환경 비료의 제조기술 및 원리를 주제로 하였다. 또한 토양 유기물 관리를 위한 보카시 등 발효 비료 및 액비 제조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웨비나 훈련 영상 시청 이후 연구자들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음 웨비나 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추가적으로, 웨비나 훈련 영상은 발표 자료와 함께 KoLFACI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프리홀 훈련

KoLFACI 프리홀 과제를 통하여 국제열대농업센터(CIAT)는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총 2회의 훈련을 진행하였다. 1월에 진행된 훈련은 강낭콩 유전자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식물육종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을 위한 방법론 등이 포함되었다. CIAT은 유전력, 멘델의 분리 유전 법칙, 분자마커, 가계도 해석을 활용

한 계획교배, 생식 방법, 육종 프로그램 현대화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진행하였다. 8월에 진행된 훈련은 강낭콩 병리학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훈련의 주제는 강낭콩 모자이크 병 바이러스, 각반병, 탄저병, 불마름병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훈련에는 총 28명의 CIAT 연구자, 회원국의 과제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행사

01

제 4차 총회 서면 개최

2023년 1월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 4차 KoLFACI 서면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2014년 9월에 한국에서 제1차 창립 총회, 2016년 11월 엘살바도르에서 2차 총회, 3차 총회는 2019년 11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되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4차 총회는 KoLFACI 사무국이 주요 의제를 각 회원국에 발송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의제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의장을 맡고 있는 파라과이 농업기술청(IPTA) 청장 에드가르 에스떼체(Edgar Esteche)를 공동 의장으로 선출하고, 페루 국립농업혁신청(INIA)의 호르헤 후안 가노사 론칼(Jorge Juan Ganoza Roncal)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의제는 카카오 과제 연장 및 중남미 농경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최적 재배 연구 과제 추진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본 총회에서는 의제에 대해 회원국이 서명하는 것으로 의결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 4차 총회 개최를 통해 KoLFACI 사업 및 운영계획 공유로 회원국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다. 또한 회원국과의 합의에 근거한 사업 운영 타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02

자메이카의 KoLFACI 신규가입

2023년 11월 의장국인 파라과이 농업기술청장과 농촌진흥청장의 서명을 통해 KoLFACI 신규회원국으로서 자메이카와 부속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로써 KoLFACI의 13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사무국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메이카의 신규 가입을 공지하였고 향후 자메이카와 과제 참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력 과제를 통한 자메이카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카리브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자메이카는 인구 293만명으로 관광, 제조, 농업, 에너지가 주요 산업이다. 그중 농업 생산성은 자메이카의 경제 기여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GDP의 7.3%는 농업 분야이며, 인구의 33%가 농업에 종사한다.

03

온실가스 포럼



2023년 6월 5일(월)~6일(화) 중남미 온실가스 현황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포럼을 개최하였다. 콜롬비아 CIAT에서 개최하였으며 KoLFACI 과제 연구자, 온실가스 정부 담당자 및 KoLFACI 사무국 총 58명이 참석하였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포럼 첫째 날에는 중남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활동을 공유하였다. 또한, 농업과학원의 정현철 연구관의 “한국의 온실가스 대응 현황을 공유 및 온실가스 측정 자동화 시스템” 연구 사례 발표가 있었다. 다음으로 중남미 6개 회원국의 온실가스 저감 연구의 현황 및 장애요인,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활동으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온실가스 분야 대응을 위해 배출량 산정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가 양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과제 책임자 및 온실가스 연구자들이 KoLFACI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둘째 날은 중남미 지역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 녹색 협력 사례 발표가 있었다. CIAT의 헤이마르 타파스코(Jeimar Tapasco) 박사는 CIAT과 콜롬비아 농업부 간 협력 연구에 대해, 미겔(Miguel) 연구원은 온실가스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관해, 데이지 마르티네스(Daisy Martínez)는 중남미 지역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 활동에 관해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국가별 농업환경, 재배기술 및 온실가스 연구의 역량 차이가 크며, 국가 간 기술 격차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남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서 국가 간의 기술 및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며, KoLFACI 사업의 역할이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행사

04

중남미 카카오 포럼



KoLFACI는 CATIE, 중미카카오위원회(SICACAO)와 함께 카카오 포럼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카카오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과학 연구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총 15개국 125명의 연구자 및 카카오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후변화 적응성 및 회복력을 위한 카카오 유전적 개량, 카카오 재배의 생산성, 수익성, 위험성 관리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남미 8개국의 농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oLFACI 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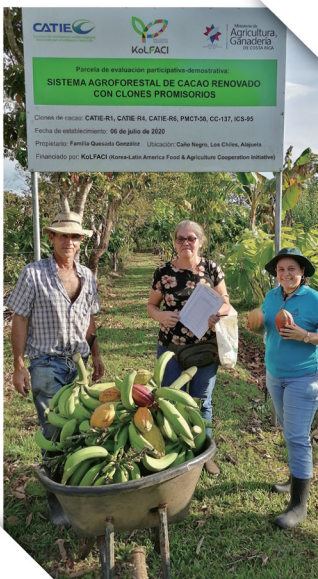
05

카카오 포럼 행사 후기

중남미·카리브지역내 카카오·커피 과제 수행 경험

롤란도 세르다, 국제열대농업센터(CATIE)

Rolando Cerda, CATIE



KoLFACI는 2017년부터 역내 주요 열대농업작물 카카오와 커피와 관련한 연구, 실증 및 훈련을 지원하고있다. 카카오와 커피 1단계 과제는 각각 2017년, 2020년에 시작해 2023년에 종료되었다.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주도 하에 KoLFACI 10개 회원국과 국가별 농업연구소가 공동 수행한 카카오·커피 과제는 2024년부터 2단계에 돌입해 최소 3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카카오 과제에서는 개량포장, 재생포장, 전통포장을 비롯하여 카카오 농장 70여 개로 구성된 국제 카카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개량포는 국가별 유망 품종과 기후 스마트농업기술을 적용한 현대농업체계를 적용하여 클론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연구하고 실증하기 위한 포장이다. 주요 과제 성과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하나, 소농이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의 농장 생산량이 국내 생산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드라이빈 수량이 연간 800~1400kg/ha를 기록했고, 이는 카카오 농민의 현금 유동성 향상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플랜테인 등 기타 작물 생산 증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과제 수행으로 접목료, 비료를 포함한 설비 및 생산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또다른 주요 성과로는 역내 카카오 포럼을 꼽을 수 있다. 중남미 15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의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카카오포럼에서는 유전, 영농, 혼농임 등 여러 분야의 연구 경험과 카카오 유관 기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포럼 참석자 간의 활발한 토의 덕분에 앞으로 각국에서 지속해 나가야 할 주요 연구 및 훈련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KoLFACI와 CATIE는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카카오 분야의 우선 과제를 논할 수 있는 역내 공론의 장을 열었다.

한편, 커피 과제를 수행한 결과 시험구를 국가 별 최소 4개, 역내 총 30여 개 설치하였다. 시험구 별로 품종 1개, 전정법 최소 3가지를 적용했으며 통합영농관리를

실시했다. 커피는 다년생 작물로, 기존 관리법 대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품종 별 우수 전정법에 대한 예비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시험구에서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 및 훈련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KoLFACI는 카카오, 커피 1단계 과제 성과의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여 각 과제의 후속 단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 2단계 과제에서는 생산성, 수익성 향상에 관한 자료와 탄소 격리를 포함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카카오 농장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품종을 이용한 우수 생산 기술 연구를 위한 육묘장 파트가 새롭게 추가된다.

커피 2단계 과제에서는 추가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커피 생산성 분석을 위한 시험구 연구를 지속하며, 국가 유전자원 은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유망 품종을 평가하는 파트가 추가된다. 그리고 양 과제 모두 대면·비대면 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에 예정된 국제커피심포지엄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향후 연구 우선과제를 논의한다. 작년 카카오 포럼과 마찬가지로 이번 커피심포지엄 역시 KoLFACI의 지원으로 개최되며 역내 중요한 모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KoLFACI 카카오·커피 과제가 인적자원 개발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현지 연구자, 기술자, 학생, 생산자가 과제 수행을 통해 쌓은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카카오·커피 과제는 향후 3년간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06

정부 합동 농업 및 토지 협력사절단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LX), 한국 부동산원이 공동으로 파견한 정부 합동 농업·토지 사절단은 2023년 2월 27일(월)~3월 3일(금) 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해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월 27일(월)~28일(화) 이틀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28일 농축산부 산티아고 베르토니(Santiago Bertoni) 장관을 예방하였다. 베르토니 장관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PIA) 참깨 보급사업 성과를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월 1일(수)~2일(목)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첫날은 한-콜롬비아 농림·토지협력사절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KoLFACI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과 디지털 농업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월 2일(목), 사절단은 「한-콜롬비아 농림·국토 협력 포럼」을 통하여 KoLFACI 커피, 프리홀 유전자 보존 과제 등을 통한 녹색 공적 개발원조(GREEN ODA) 협력을 논의하였다.

사절단 일행은 3월 3일(금) 마지막 방문국인 가이아나 농업부 줄피카 무스타파(Zulfikar Mustapha) 장관을 예방하여 한-가이아나 간 농업기술 연구 협력을 논의하였다. 또 카리브농업연구소(CARD) 가이아나 지소를 방문하여 카리브 지역 신규 농업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협의하였다.



KoLFACI 사무국 직원



이경태 사무총장

- ◻ KoLFACI 사업 및 사무국 운영 총괄



한종석 사무국장

- ◻ KoLFACI 사업 기획 및 사무국 운영 총괄
- ◻ 중남미 개도국 · 국제기구 협력 및 국내외 현안 대응 총괄
- ◻ 외국인 초청훈련 프로그램 관리 총괄



한은정 사무차장

- ◻ KoLFACI 사업기획 및 사무국 운영
- ◻ KoLFACI 사업운영 및 과제 관리(협약, 성과 분석 · 평가, 성과 확산 및 홍보)
- ◻ KoLFACI 교육훈련 운영 및 국제기구 협력



이민정 통역사

- ◻ KoLFACI 사업 및 행사 관련 스페인어 통 · 번역
- ◻ KoLFACI 신규가입 관련 업무지원
- ◻ KoLFACI 회원국 관리 (아이티, 파나마)



박시은 코디네이터

- ◻ KoLFACI 과제(카카오 · 축분 퇴비) 운영관리 및 자료번역
- ◻ KoLFACI 회원국 관리(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 ◻ KoLFACI 예산 관리 및 국제행사 대응
- ◻ 카리브 지역 신규협력 추진 관련 업무지원



이가영 코디네이터

- ◻ KoLFACI 과제(강낭콩 · 커피 · 온실가스) 운영관리 및 자료번역
- ◻ KoLFACI 홍보자료 (뉴스레터, 홈페이지) 지원
- ◻ KoLFACI 회원국 관리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2024년 주요 행사 계획

2월

커피 신규과제
착수회의

3월

중미 5개국
주한대사 내청

5월

가축퇴비 웨비나,
농업협력 중남미
사절단

6월

온실가스 연례
평가회 및 과테말라
현지 점검

9월

카카오 신규 과제
착수 회의

10월

커피 포럼,
강낭콩 및 커피 과제
연례평가회

11월

카카오 과제
연례평가회

12월

가축 퇴비 과제
연례평가회



KoLFACI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 ☒ 농식품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
 - ☒ 회원국 소식 의견을 KoLFACI 메일(kolfaci@korea.kr)로 보내주세요.
- KoLFACI에 관한 더 많은 자료는 홈페이지(www.kolfaci.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